

파이퍼하이직 레어 PIPER HEIDSIECK RARE



용량	750ml
빈티지	2013
종류	스파클링
국가	프랑스 >상파뉴
품종	CHARDONNAY 70% PINOT NOIR 30%
숙성	리숙성 최소 8년, 코르크 숙성 1년
세부종류	샴페인
알콜도수	12%

TASTING

시음적정온도	5°C
시음적정시기	2030-2040
Aroma	★★★★★ (4)
Body	★★★★★ (3)
Tannin	★★★★★ (0)
Acidity	★★★★★ (4)
Sweet	★★★★★ (0)

테이스팅노트 독특하고 우아한 개성을 지닌 레어 2013 빈티지는 샤르도네 70%, 피노누아 30%의 비율로 블렌딩되어 바디감과 함께 그린티, 시트러스, 금귤과 흰꽃의 노트를 보여준다. 플로럴하면서 도스파이시하고, 향긋하지만 스모키한 대조적인 노트가 잘 어우러져 다채로운 모습을 지닌다. 숙성 연도가 길어질수록 궁극의 신선함과 지속적인 미네랄리티, 여운을 남기는 레어 샴페인 2013 빈티지는 40년 이상의 숙성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푸드매칭 레몬과 생강을 곁들인 꿀 요리, 샤프란 리조또, 사시미, 구운 랍스터, 밀크 초콜릿, 망고

상 품 특징 - 전설적인 빈티지라 불리는 레어 2002 빈티지 만큼의 찬사를 받고 있는 레어 2013 빈티지 - 가을의 따스한 노을빛을 연상케 하는 신선한 노트와 강렬한 골드 컬러의 샴페인 - 출시 직후 제임스 서클링 96점 획득, 전설적인 레어 2002 빈티지 만큼의 찬사를 받고 있는 레어 샴페인 2013 빈티지

BRAND INFO.

공급사 이름 PIPER HEIDSIECK

공급사 정보 레어 샴페인의 첫 시작은 1785년 5월 6일, 플로렌스 루이 하이직이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여왕을 만나고 온 루이 하이직의 노트에는 "여왕에게 걸맞는 샴페인을 만들고 싶다"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그 후 200년이 지난 1985년, 레어 샴페인 1976 빈티지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후 약 40년 동안 레어 샴페인은 단 13개의 빈티지만을 선보였다. 레어 샴페인 셀러 마스터는 자연과 시간이 주는 선물 같은 연도만을 고집했고, 여기에 자신의 감각을 더해 한정된 빈티지의 레어 샴페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선택된 레어 샴페인 빈티지는 해를 거듭해 숙성될수록 궁극의 신선함과 지속적인 미네랄리티, 미묘하지만 우아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레어 샴페인을 마신 뒤 완관처럼 쓸 수 있는 황금색의 티아라 레이블은 아르스튀 베르트랑(Arthus Bertrand)이 디자인한 것으로 승리의 포도나무를 상징한다.

브랜드 소개 긴 역사의 샴페인 하우스, 럭셔리를 지향하는 샴페인 하우스

수상 or 점수 James Suckling 96 Points